믿음과 희망주는 고성군의회

2024. 9. 12.(목) 10:00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고성군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 -

고성군의회
(정영환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정영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고성군은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운동으로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자료: 도박문제 관련 상담 현황)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대상 도박 문제 관련 상담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문제 상담자 수가
2018년 1,027명에서 2023년 1,406명으로,
5년 만에 약 37%가 증가했습니다.

(사진자료: 도박유형별 청소년 이용 현황)

이어서 도박유형별 청소년 이용 현황을 보면
2023년 도박중독 상담을 받은 청소년 중
대다수인 92.7%가 온라인 도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도박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온라인 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뉴스 기사)

지난 4월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500여 명을 도박에 끌어들여
2억여 원을 송금받은 10대들이 검거되었는데,
청소년들이 직접 서버 개설부터 모집까지 맡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 중독성을 지닌 도박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경험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심각한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불법 도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및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 보호기능이
강화된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몰입하여 온라인 도박에 더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시설을 마련하여 건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같은 공공기관과
서로 연계하여 지역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고성군 청소년들은 도박과 거리가
멀다고 믿지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後悔莫及(후회막급)”이라 하였습니다.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어찌할 수
없다는 뜻으로,
고성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